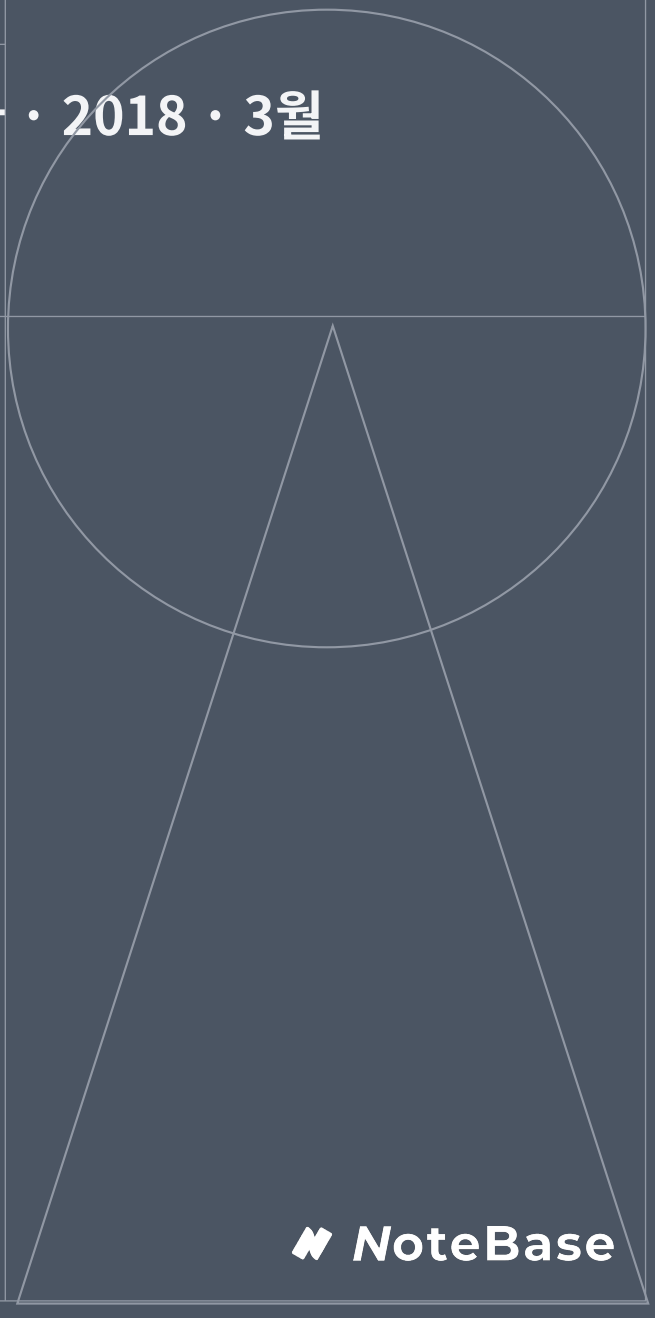
#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8 · 3월



NoteBase

#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8 · 3월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8 · 3월**

**문 1.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항하여 전개된 다음의 민족운동 가운데 그 시기가 가장 늦은 것은?**

① 임시정부는 헌법을 개정해 국무령을 채택하였다.

② 경성 고무공장 여성노동자들이 '아사동맹'을 맺으며 파업하였다.

③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을 저술하였다.

④ 이봉창이 동경에서 일왕의 행차에 폭탄을 던졌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일제 강점기 민족운동의 대표 사건들을 연도순으로 배열하여 가장 늦게 일어난 사건을 고르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③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 작성 - 1923년 의열단의 독립혁명 이념을 정리하였다.
2. 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령제 채택 - 1925년 2차 개헌으로 국무령 중심 체제로 바뀌었다.
3. ② 경성고무공장 여성노동자의 아사동맹 파업 - 1930년 노동운동의 대표 사례이다.
4. ④ 이봉창의 도쿄 의거 - 1932년 1월 일왕 행차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왜 이 순서: ②와 ④가 가장 헷갈리지만, 경성고무 파업은 1930년이고 이봉창 의거는 1932년이므로 ④가 더 늦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임시정부가 헌법을 개정해 국무령제를 채택한 사실 자체는 맞다.
- 다만 시기가 1925년이므로 1930년대 사건들보다 이르다.
- 올바르게는: ①은 1925년 사건이므로 가장 늦은 것이 아니다.

② X
- 경성고무공장 여성노동자들이 아사동맹을 맺고 파업한 것은 1930년의 사실이다.
- 1930년은 1932년의 이봉창 의거보다 앞서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올바르게는: ②는 1930년 노동운동 사례이므로 가장 늦은 것은 아니다.

③ X
-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을 저술한 것은 1923년이다.
- 네 선택지 중 가장 이른 시기이므로 '가장 늦은 것'이라는 조건과 맞지 않는다.
- 올바르게는: ③은 1923년 의열단의 투쟁 이념을 밝힌 사건이므로 가장 늦은 것이 아니다.

④ O
- 이봉창이 도쿄에서 일왕 행차에 폭탄을 던진 것은 1932년의 사건이다.
- 1923년, 1925년, 1930년보다 뒤이므로 네 선택지 가운데 가장 늦다.

### 오답 포인트

선지의 사실관계만 맞는지 보고 고르면 ①, ②도 눈에 들어온다.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연도 비교가 핵심이므로 사건의 성격보다 1923-1925-1930-1932의 순서를 먼저 잡아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도 배열형 문제는 각 사건을 한 줄 연표에 놓고 가장 이른 것과 가장 늦은 것을 먼저 확정하면 된다.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1923), 임시정부 국무령제(1925), 경성고무 파업(1930), 이봉창 의거(1932)처럼 기준 연도를 묶어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조선혁명선언 1923 → 국무령 1925 → 경성고무 1930 → 이봉창 1932의 흐름이다.

NoteBase

**문 2. <보기 1>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1402년(태종 2)에 의정부 정승 이무와 김사형이 발의하여 이회가 제작하고, 권근이 발문을 쓴 세계지도이다.
<보기 2>
ㄱ. 원나라 세계지도를 참고하고, 여기에 한반도와 일본 지도를 첨가하여 만들었다.
ㄴ. 지도의 중심에 중국이 위치하였고, 중국과 한국을 실제보다 크게 그렸다.
ㄷ.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은 지도에 빠져 있다.
ㄹ. 후대의 모사본 가운데 하나를 일본 류코쿠대학이 소장하고 있다.
ㅁ. 지도 제작에 참여한 이회는 이보다 앞서 『동국지도』도 만든 바 있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제작 배경과 지도상의 특징, 관련 인물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1402년에 제작된 조선 전기 세계지도로, 중국에서 들어온 세계지도 계통에 우리나라와 일본 지리 정보를 보완해 만든 지도이다.
이 지도의 핵심 키워드는 중국 중심 배치, 조선과 중국의 확대 표현, 유럽·아프리카 수록, 이회의 참여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1번 O: 1번은 ㄱ, ㄴ, ㄹ의 조합이다. ㄱ은 원나라 계통의 세계지도를 참고하고 한반도와 일본 지도를 더해 제작했다는 설명으로 옳다. ㄴ도 중국을 중심에 두고 중국과 조선을 실제보다 크게 그린 특징을 설명하므로 옳다. ㄹ 역시 후대 모사본 가운데 하나를 일본 류코쿠대학이 소장하고 있으므로 옳다.
2번 X: 2번은 ㄱ, ㄴ, ㅁ의 조합인데 ㅁ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동국지도'이다. 이회가 이 지도 제작에 앞서 만든 것은 동국지도가 아니라 팔도도 계통의 우리나라 지도이다.
3번 X: 3번은 ㄴ, ㄷ, ㄹ의 조합인데 ㄷ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틀린 표현은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은 지도에 빠져 있다'이다. 실제로는 이 지도에 유럽과 아프리카가 포함되어 있고, 형태와 비율이 정확하지 않을 뿐이다.
4번 X: 4번은 ㄴ, ㄹ, ㅁ의 조합인데 ㅁ이 틀리므로 오답이다. ㅁ의 '동국지도'를 '팔도도 계통의 지도'로 고쳐야 맞는 설명이 된다.

### 오답 포인트

유럽과 아프리카가 서양 근대 지도처럼 정교하지 않게 표현되었다는 이유로 아예 빠졌다고 오해하기 쉽다. 또한 이회와 연결되는 선행 지도를 '동국지도'로 잘못 외우면 ㅁ 때문에 조합 판단이 흔들린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 전기 세계지도 문제가 나오면 먼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핵심 특징을 확인한다. 1402년 제작, 중국 중심 배치, 조선 확대, 유럽·아프리카 포함, 이회의 팔도도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각 진술의 옳고 그름을 가른다.

### 암기 포인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1402년, 중국 중심 세계지도, 유럽·아프리카 포함, 이회의 팔도도 활용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3. <보기>의 (가)가 건립된 왕대에 있었던 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내가 일찍이 (가)를 구경하기 위해 집안현에 이르러 여관에서 만주인 영자평이란 소년을 만나 필담을 나누었는데, (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가)가 오랫동안 초래(草萊)에 묻혀 있다가 최근에 이 지방 영희(英禧)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가) 가운데 고구려가 중국 토지를 침탈했다는 자구들이 들어 있었으므로, 중국인들이 그것을 칼과 도끼로 쪼아냈습니다. 그 다음 일본인들이 (가)를(을) 차지하여 영업적으로 탁본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닳아 없어지거나 이지러진 부분을 석회로 떼어 발랐는데, 이 때문에 그동안 인식할 수 없었던 자구가 도리어 생겨나 참된 사실은 삭제되고 위조된 사실이 첨가된 것 같습니다."

① 북연(北燕) 왕인 풍홍을 둘러싸고 북위 및 송과 갈등을 빚었다.
② 거란족 비려의 3개 부락을 격파하고 소·말·양을 노획하였다.
③ 당나라에서 도사와 『도덕경』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도교의 일파인 오두미도(五斗米道)도 유입되었다.
④ 이문진에게 명하여 『유기』를 『신집』 5권으로 개수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보기의 사료가 광개토 대왕릉비임을 파악하고, 이 비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록한 자료이지만 실제 건립은 장수왕 때라는 점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집안현에서 발견되었고 일본인들이 탁본을 만들어 팔았다는 설명으로 광개토 대왕릉비를 특정한다.
2. 비에 적힌 정복 활동의 주체와 비를 세운 시기를 구분한다.
3. 광개토 대왕릉비는 장수왕이 세운 비이므로 장수왕 대의 사실을 고른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북연 왕 풍홍을 둘러싸고 북위 및 송과 갈등을 빚은 것은 장수왕 대의 대외 관계이다. 광개토 대왕릉비가 세워진 시기의 사실과 맞는다.
② X: 거란족 비려의 3개 부족을 격파하고 소·말·양을 노획한 일은 광개토대왕의 정복 활동이다. 틀린 표현은 이를 비가 건립된 장수왕 대의 일로 연결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비문에 기록된 광개토대왕 대의 업적이다.
③ X: 당에서 도사와 『도덕경』이 들어오고 오두미도가 유입된 것은 고구려 말기 보장왕 때의 일이다. 틀린 표현은 이를 장수왕 대의 사실처럼 제시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연개소문 집권기 대당 관계와 관련된 사실이다.
④ X: 이문진에게 명하여 『유기』를 『신집』 5권으로 개수한 것은 영양왕 때이다. 틀린 표현은 이를 장수왕 대 사건으로 제시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수와 대립하던 시기의 영양왕 대 문화 정비이다.

### 오답 포인트

수험생이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은 광개토 대왕릉비를 보고 곧바로 광개토대왕 대의 일을 고르는 점이다. 이 문항은 비문에 적힌 주인공의 시대가 아니라 비가 세워진 시대를 묻기 때문에 ②가 대표적인 함정 선지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석·묘지명·탑비 자료가 나오면 내용의 주인공 시기와 건립 시기를 먼저 분리해서 본다. 특히 추모 성격의 비석은 후대 왕이 세운 경우가 많으므로 건립 주체를 기준으로 왕대를 확정한다.

### 암기 포인트

광개토 대왕릉비의 내용은 광개토대왕의 업적이고, 건립은 장수왕이며, 풍홍 사건은 장수왕 대의 사실이다.

NoteBase

**문 4. <보기>의 (갑)은 조선시대 신분층에 대한 설명이다. (갑)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무릇 (갑)의 매매는 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사사로이 몰래 사고 팔았을 때는 관청에서 (갑)과 그 대가로 받은 물건을 모두 몰수한다. 나이 16세 이상 50세 이하는 값이 저화 4천 장이고, 15세 이하 50세 이상은 3천 장이다.
- 『경국대전』

①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나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② 부모 모두가 (갑)일 경우에만 그 자녀도 (갑) 신분이 되었다.
③ 주인과 떨어져 독립된 생활을 하며 신공(身貢)을 바치기도 했다.
④ 국가에 소속된 경우 관청의 잡무 처리와 물품 제작에 참여했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 시대 노비의 법적 성격, 세습 원리, 공노비와 사노비의 생활 형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노비는 조선에서 천민 신분이면서 동시에 재산처럼 취급되어 매매·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사노비 중에는 주인집 밖에서 생활하며 신공을 바치는 외거노비가 있었다.
공노비는 국가나 관청에 소속되어 잡무나 수공업 생산을 담당하였다.
노비 신분은 부모가 모두 노비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 한쪽의 신분만으로도 자녀에게 세습될 수 있었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O
노비는 재산으로도 취급되어 매매·증여·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② X
틀린 부분은 '부모 모두가 (갑)일 경우에만'이다.
조선에서는 부모가 모두 노비여야만 자녀가 노비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올바르게는 '부모 한쪽이 노비인 경우에도 자녀가 노비가 될 수 있었다'이다.

③ O
사노비 가운데에는 주인과 떨어져 살면서 일정한 신공을 바치는 외거노비가 있었다. 따라서 독립된 생활과 신공 납부를 연결한 설명은 맞다.

④ O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는 관청의 잡무를 맡거나 물품 제작 같은 수공업 생산에 동원되었다. 따라서 공노비의 역할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다.

### 오답 포인트

②는 노비 세습 조건을 지나치게 좁혀서 틀리게 만든 선지이다. 조선의 노비는 '부모 모두가 노비'여야만 되는 신분이 아니므로, 세습 조건을 절대화하는 표현이 나오면 먼저 의심하게 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 신분제 문제에서는 먼저 (갑)이 노비인지 확인한 뒤, 재산 취급 여부, 공노비·사노비의 구분, 신분 세습 원리를 기준으로 선지를 하나씩 대조하면 된다.

### 암기 포인트

노비는 재산 취급, 사노비는 신공 가능, 공노비는 관청 노동이라는 연결로 기억하면 된다.

NoteBase

**문 5. 조소앙이 주장한 '삼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국 사상가 쑨원(孫文)의 삼민주의에서 영향을 받았다.

② 정치, 경제, 교육 분야에서의 균등을 주장하였다.

③ 토지 및 대기업의 국유화에 반대하였다.

④ 식민정책과 침략전쟁을 반대하였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소앙의 삼균주의가 무엇을 주장했는지를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조소앙의 삼균주의는 개인 간, 민족 간, 국가 간의 균등을 지향한 독립운동 이념이다.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핵심으로 하며, 대외적으로는 침략과 식민 지배를 부정하고 대내적으로는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공영적 운영 구상을 담고 있다.
사상적 배경으로는 중국 쑨원의 삼민주의의 영향이 거론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쑨원(손문)의 삼민주의는 조소앙의 삼균주의 형성에 영향을 준 사상적 배경으로 이해된다. 민족·민권·민생을 내세운 삼민주의와 연결해 조소앙이 균등의 원리를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맞는 설명이다.

② O
삼균주의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주장하였다. 단순한 정치 이념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균등한 기회를 함께 강조하였다는 점이 핵심이므로 옳다.

③ X
틀린 부분은 "토지 및 대기업의 국유화에 반대"하였다는 표현이다. 삼균주의는 오히려 토지와 대생산기관을 개인 독점에 맡기지 않고 국유화·공영화하는 방향을 포함하였다.

④ O
삼균주의는 제국주의적 식민정책과 침략전쟁을 부정하였다. 독립과 평등을 지향한 이념이므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반대는 자연스러운 내용이다.

**오답 포인트**

③은 오늘날의 자유방임적 경제관과 혼동하면 쉽게 속는다. 삼균주의의 경제 구상은 사유재산 절대 옹호가 아니라 균등 실현을 위한 토지·대생산기관의 공공성 강화에 가깝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소앙이 보이면 먼저 정치·경제·교육의 균등, 반제·반침략, 토지·대생산기관의 공공성 강화라는 세 축을 연결해 판단한다. 선지에 "국유화 반대"처럼 균등 실현 수단을 거꾸로 뒤집은 표현이 나오면 오답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조소앙 삼균주의 = 정치·경제·교육 균등 + 반제국주의 + 토지·대생산기관의 공공성 강화이다.

NoteBase

**문 6. <보기>의 (가)에 해당하는 인물의 활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신인(神人)이 말하였다. “지금 그대 나라는 여자가 왕위에 있으니 덕은 있지만 위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가 침략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는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가)가(이) 다시 물어보았다. “고국에 돌아가면 어떤 이로운 일을 해야합니까?” 신인이 답했다. “황룡사의 호법용(護法龍)은 나의 맡아들입니다. 범왕(梵王)의 명을 받고 가서 그 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고국에 돌아가거든 절 안에 9층탑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이웃나라가 항복할 것이고 구한(九韓)이 와서 조공할 것이며 왕업의 길이 편안할 것입니다. (중략)”
정관 17년 계묘 16일에 (가)는(은) 당나라 황제가 준 불경과 불상, 승복과 폐백 등을 가지고 와 탑을 세울 일을 왕에게 아뢰었다.

① 세속오계를 통해 당시 신라사회가 요구하는 도덕관념을 가르쳤다.
② 대승불교의 두 흐름인 중관과 유식의 대립을 극복하며 화쟁을 주장하였다.
③ 대국통(大國統)에 임명되어 출가자의 규범과 계율을 주관하였다.
④ 질병 등 현실적 재난 구제에 치중하는 밀교를 전파하였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선덕 여왕 때 당에서 불경과 불상을 들여오고 황룡사 9층탑 건립을 건의한 자장의 활동을 다른 승려들의 활동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자장: 계율 정비와 황룡사 9층탑 건립 건의로 대표되는 승려이다.
원광: 세속오계를 제시하여 화랑도의 실천 윤리를 설명한 승려이다.
원효: 일심 사상과 화쟁으로 불교 종파의 대립을 조화시키려 한 승려이다.
명랑: 밀교를 받아들여 문두루비법 등으로 외적과 재난을 물리치는 데 힘쓴 승려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1번 X: 세속오계를 통해 당시 신라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관념을 가르친 인물은 원광이다. 자장과 연결한 부분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원광이 세속오계를 통해 화랑도의 윤리를 제시하였다.'이다.
2번 X: 대승불교의 두 흐름인 중관과 유식의 대립을 극복하며 화쟁을 주장한 인물은 원효이다. 자장과 연결한 부분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원효가 중관과 유식의 대립을 조화시키며 화쟁을 주장하였다.'이다.
3번 O: 자장은 대국통에 임명되어 출가자의 규범과 계율을 주관하였다. 황룡사 9층탑 건립 건의와 함께 자장의 대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4번 X: 질병 등 현실적 재난 구제에 치중하는 밀교 전파는 명랑과 관련된다. 자장과 연결한 부분이 틀렸으며, 올바르게는 '명랑이 밀교를 전파하여 재난 극복을 도모하였다.'이다.

### 오답 포인트

자장, 원광, 원효, 명랑은 모두 불교 관련 인물이라 활동이 서로 섞이기 쉽다. 특히 황룡사 9층탑 건의는 자장, 세속오계는 원광, 화쟁은 원효, 밀교는 명랑으로 나누어 기억해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삼국 시대 승려 문제는 인물 이름보다 대표 키워드로 판단하는 편이 정확하다. 사료에 황룡사 9층탑, 당 유학, 계율 정비가 보이면 자장을 우선 연결할 수 있다.

### 암기 포인트

자장=황룡사 9층탑·대국통, 원광=세속오계, 원효=화쟁, 명랑=밀교이다.

NoteBase

**문 7. <보기>의 고려 후기 역사서를 시간순으로 옳게 배열한 것은?**

<보기>
ㄱ. 민지의 『본조편년강목』
ㄴ. 이제현의 『사략』
ㄷ. 원부, 허공의 『고금록』
ㄹ. 이승휴의 『제왕운기』

① ㄱ - ㄹ - ㄴ - ㄷ
② ㄹ - ㄱ - ㄴ - ㄷ
③ ㄷ - ㄹ - ㄱ - ㄴ
④ ㄹ - ㄷ - ㄱ - ㄴ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고려 후기 대표 역사서의 편찬 시기를 앞뒤 관계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ㄷ 『고금록』 - 1284년에 편찬된 역사서이다.
2. ㄹ 『제왕운기』 - 1287년에 이승휴가 지은 역사서이다.
3. ㄱ 『본조편년강목』 - 1317년에 민지가 저술한 역사서이다.
4. ㄴ 『사략』 - 1357년에 이제현이 편찬한 역사서이다.

왜 이 순서: 『고금록』이 1284년으로 가장 이르고, 『제왕운기』가 1287년, 『본조편년강목』이 1317년, 『사략』이 1357년이므로 ㄷ-ㄹ-ㄱ-ㄴ의 흐름이 성립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ㄱ 『본조편년강목』을 ㄹ 『제왕운기』보다 앞에 둔 점이 틀리다. 『본조편년강목』은 1317년이고 『제왕운기』는 1287년이다. 올바르게는 ㄷ-ㄹ-ㄱ-ㄴ이다.
② X - ㄷ 『고금록』이 가장 이른 역사서인데 마지막에 둔 점이 틀리다. 『고금록』은 1284년으로 네 책 가운데 가장 빠르다. 올바르게는 ㄷ-ㄹ-ㄱ-ㄴ이다.
③ O - ㄷ 『고금록』(1284) → ㄹ 『제왕운기』(1287) → ㄱ 『본조편년강목』(1317) → ㄴ 『사략』(1357)의 시간 순서와 일치한다.
④ X - ㄹ 『제왕운기』를 ㄷ 『고금록』보다 앞에 둔 점이 틀리다. 『고금록』이 1284년, 『제왕운기』가 1287년이다. 올바르게는 ㄷ-ㄹ-ㄱ-ㄴ이다.

### 오답 포인트

『제왕운기』와 『고금록』을 모두 충렬왕 대의 역사서로 묶어 두고 세부 연도를 놓치기 쉽다. 또 『본조편년강목』과 『사략』을 모두 고려 후기 편년체 역사서로만 기억하면 1317년과 1357년의 선후가 흐려진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역사서는 제목만 외우지 말고 13세기 후반과 14세기 전반으로 끊어 판단하면 된다. 충렬왕 대의 『고금록』·『제왕운기』를 먼저 놓고, 그 뒤에 민지의 『본조편년강목』, 이제현의 『사략』을 이어 붙이면 순서가 정리된다.

### 암기 포인트

고제본사의 흐름이다. 『고금록』 → 『제왕운기』 → 『본조편년강목』 → 『사략』이다.

NoteBase

**문 8.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소과인 생원과나 진사과에 합격하면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

② 생원과나 진사과의 초시에는 지역별 할당 인원을 정했지만, 문과의 경우는 지역 할당 없이 초시, 복시 모두 시험 성적순으로 뽑았다.

③ 『경국대전』에서는 탐관오리의 자식,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다.

④ 문과 합격자에게는 합격 증서에 해당하는 백패를 수여했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조선의 과거제에서 소과와 문과의 관계, 응시 제한 대상, 합격 증표를 정확히 구분하는지가 핵심이다.

**핵심 개념**

소과는 생원과·진사과를 통해 사마를 선발하는 단계이고, 문과는 관리 선발을 위한 대과이다.
응시 제한은 신분과 가계의 조건에 따라 적용되었고, 대표적으로 서얼, 재가한 여자의 자손, 탐관오리의 자손 등이 제약을 받았다.
합격 증표는 문과가 홍패, 소과가 백패로 구분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소과인 생원과나 진사과 합격자는 문과 응시 자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틀린 표현은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이다. 올바르게는 소과 합격자가 문과 진출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
② X: 생원과·진사과 초시에는 지역별 할당이 있었고, 문과도 초시 단계에서는 지역별 선발 구조가 있었다. 틀린 표현은 "문과의 경우는 지역 할당 없이"이다. 올바르게는 문과 역시 초시에는 지역별 할당이 반영되고, 최종 단계에서 성적순 선발이 이루어졌다.
③ O: 『경국대전』에는 서얼,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탐관오리의 자손 등의 응시 제한 규정이 있었다. 조선 과거제의 대표적 신분 제약을 묻는 선지로서 옳다.
④ X: 문과 합격자에게 주는 합격 증서는 백패가 아니라 홍패이다. 틀린 표현은 "백패"이다. 올바르게는 문과 합격자에게는 홍패를, 생원과·진사과 합격자에게는 백패를 수여하였다.

**오답 포인트**

④는 백패와 홍패를 바꾸어 놓은 대표 함정이다. ①은 소과와 문과의 관계를 반대로 뒤집었고, ②는 지역 할당이 소과에만 있었던 것처럼 서술해 혼동을 유도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 과거제 문제는 먼저 소과와 문과의 단계 관계를 구분하고, 다음으로 응시 제한 대상과 합격 증표를 연결해 판단하면 된다. 백패·홍패처럼 짝으로 외우는 요소는 선지의 진위를 빠르게 가르는 기준이 된다.

**암기 포인트**

소과는 문과로 가는 예비 단계, 문과는 홍패, 소과는 백패, 서얼·재가녀 자손은 응시 제한이다.

NoteBase

**문 9. <보기>의 1960~70년대 전개된 민주화 운동을 시간순으로 옳게 배열한 것은?**

<보기>
ㄱ. YH여성 노동자들이 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다.
ㄴ. 삼선개헌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ㄷ. 교련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위수령이 발동되었다.
ㄹ. <동아일보> 기자들이 언론자유 수호투쟁을 전개하였다.

① ㄴ - ㄱ - ㄷ - ㄹ
② ㄴ - ㄱ - ㄹ - ㄷ
③ ㄴ - ㄷ - ㄱ - ㄹ
④ ㄴ - ㄷ - ㄹ - ㄱ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960~70년대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의 발생 시기를 연결하여 올바른 순서를 고르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ㄴ - 삼선개헌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된 것은 1969년이다.
2. ㄷ - 교련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위수령이 발동된 것은 1971년이다.
3. ㄹ -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 수호 투쟁은 자유언론실천선언이 나온 1974년이다.
4. ㄱ - YH 여성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은 1979년이다.

왜 이 순서: 1969년 삼선개헌 반대 시위가 가장 이르고, 교련 반대 운동은 그보다 뒤인 1971년, 동아일보 자유언론실천선언은 1974년, YH 사건은 1979년이므로 ㄴ-ㄷ-ㄹ-ㄱ의 흐름이 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ㄴ-ㄱ-ㄷ-ㄹ 배열로, 가장 늦은 사건인 ㄱ(1979년 YH 사건)을 두 번째에 두어 ㄷ(1971년 교련 반대 운동)과 ㄹ(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보다 앞세운 점이 틀리다. ㄱ은 맨 뒤에 와야 한다.

② X
ㄴ-ㄱ-ㄹ-ㄷ 배열로, ㄱ(1979년 YH 사건)을 ㄹ(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과 ㄷ(1971년 교련 반대 운동)보다 앞세웠고 ㄷ이 ㄹ보다 뒤에 놓여 있어 틀리다. 올바른 순서는 ㄴ-ㄷ-ㄹ-ㄱ이다.

③ X
ㄴ-ㄷ-ㄱ-ㄹ 배열로, ㄱ(1979년 YH 사건)을 ㄹ(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 수호 투쟁)보다 앞세운 점이 틀리다. ㄹ이 ㄱ보다 먼저 와야 한다.

④ O
ㄴ-ㄷ-ㄹ-ㄱ은 1969년 삼선개헌 반대 시위, 1971년 교련 반대 시위와 위수령 발동, 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선언, 1979년 YH 여성 노동자 신민당사 농성의 순서를 정확히 배열하였다.

### 오답 포인트

YH 사건과 동아일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모두 유신 시기의 사건으로만 묶어 두면 선후관계가 흐려지기 쉽다. 1971년 교련 반대 운동, 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 1979년 YH 사건처럼 1970년대 사건의 연도를 끊어서 기억하는지가 정답을 가른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도 배열 문제는 가장 이른 사건과 가장 늦은 사건을 먼저 잡으면 판단이 빨라진다. 이 문항에서는 1969년 삼선개헌 반대 시위를 맨 앞, 1979년 YH 사건을 맨 뒤에 두고 그 사이에 1971년 교련 반대 운동과 19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끼우면 된다.

### 암기 포인트

삼선개헌 반대 시위 1969 → 교련 반대 운동 1971 → 동아일보 자유언론실천선언 1974 → YH 사건 1979의 흐름이다.

NoteBase

**문 10. <보기>의 글이 발표된 사건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전개된 민족운동은?**

<보기> 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치욕이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생존경쟁이 심한 이 세상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장차 어찌 될 것인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기를 맹세하는 사람은 살아 나갈 수 있으니 이는 여러분이 잘 알 것이다.

① 지금 의의 깃발을 치켜들고 '보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았다.

② 군인이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

③ 오늘 병사를 일으키려는 것은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다.

④ 충남 정산에서 전 참판 민종식이 의병을 일으켰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민영환의 유서가 발표된 시점을 을사늑약 직후로 파악하고, 각 민족운동의 계기와 연도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민영환의 유서는 1905년 을사늑약에 항거한 자결 직전의 글이다. 동학 농민 운동은 1894년, 을미의병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계기인 1895년, 을사의병은 을사늑약 직후인 1905~1906년, 정미의병은 군대 해산을 계기로 한 1907년에 전개되었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1번 X: '보국안민'을 내건 것은 1894년 동학 농민 운동 1차 봉기의 격문 내용이다. 보기의 민영환 유서는 1905년 을사늑약 직후이므로 시기 차가 크다. 틀린 부분은 이 운동을 '가장 가까운 시기'로 고른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동학 농민 운동보다 을사의병이 훨씬 가깝다.
2번 X: 이 문구는 1907년 군대 해산에 항거해 자결한 박승환의 유서와 관련된다. 1905년보다 2년 뒤이므로 비교적 가깝지만, 을사늑약 직후 같은 흐름에서 전개된 을사의병보다 가깝지는 않다. 틀린 부분은 이 사건을 최인접 시기로 본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박승환의 자결은 정미의병의 계기이다.
3번 X: '국모의 원수'를 갚겠다는 내용은 을미사변 뒤 일어난 을미의병과 관련된 민용호의 유림 통문이다. 1895년의 일이라 1905년과는 10년 차이가 난다. 틀린 부분은 을미의병을 보기 사건과 가장 가깝게 본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을미의병보다 을사의병이 시기상 더 가깝다.
4번 O: 민종식이 충남 정산에서 의병을 일으킨 것은 을사늑약에 항거한 을사의병의 전개이다. 보기의 민영환 유서도 을사늑약 직후 발표되었으므로 두 사건이 가장 가까운 시기에 해당한다.

### 오답 포인트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은 모두 항일 의병이라 이름이 비슷해 계기와 연도를 섞기 쉽다. 특히 2번은 1907년이라 가까워 보이지만, 보기는 1905년 을사늑약 직후이므로 같은 계기에서 나온 을사의병을 골라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제시문이 가리키는 사건의 직접 계기를 찾고 연도를 확정한 뒤, 각 선지를 계기 사건과 연도로 다시 묶어 비교하면 된다. 을사늑약이면 1905년, 군대 해산이면 1907년, 을미사변이면 1895년, 보국안민이면 1894년으로 판단한다.

### 암기 포인트

보국안민 1894 동학, 국모 원수 1895 을미의병, 민영환 유서 1905 을사늑약, 박승환 자결 1907 정미의병으로 연결된다.

NoteBase

**문 11. 고려 무신정권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위총은 의종 복위를 내세우며 집권 무신을 타도하고자 했다.

② 산발적이던 민란은 김사미, 효심의 봉기를 계기로 연대하였다.

③ 최충헌은 명종을 폐하고 신종, 희종, 강종, 고종을 차례로 세웠다.

④ 최이의 처가 죽자 왕후처럼 장례를 치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무신정권기 반무신 봉기, 민란의 전개, 최씨 무신정권의 권력 장악 과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위총의 난은 서경의 조위총이 북계 세력과 함께 무신 집권자 제거를 시도한 반무신 봉기이다.
의종 복위를 내세운 대표적 사건은 김보당의 난이다.
김사미·효심의 봉기는 남부 지방의 민란 세력이 연합한 사례이고, 최씨 정권기에는 국왕의 폐립과 사적 권세 과시가 두드러졌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한국사 · 2018 · 3월**

**선지별 해설**

① X
조위총의 난은 무신 집권자에 반대한 봉기이지만, 틀린 부분은 "의종 복위"이다.
의종 복위를 내세우며 무신 정권 타도를 시도한 것은 김보당의 난이고, 조위총은 서경에서 북계 군사를 이끌고 무신 집권자 제거를 시도하였다.

② O
김사미와 효심은 각각 운문과 초전을 근거지로 봉기한 뒤 서로 연합하였다.
무신정권기 산발적 민란이 더 큰 세력으로 묶여 전개된 대표 사례이므로 옳다.

③ O
최충헌은 명종을 폐하고 신종을 세웠고, 이후 최씨 정권 아래에서 희종·강종·고종으로 왕위 교체가 이어졌다.
왕을 폐하고 세우는 권한이 최씨 무신정권에 있었음을 보여 주는 진술이므로 옳다.

④ O
최이(최우)의 처가 죽었을 때 왕후의 예에 준하는 장례가 치러졌다.
이는 최씨 무신정권이 왕실에 버금가는 권세를 누렸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조위총의 난과 김보당의 난은 모두 무신정권에 반대한 사건이어서 서로 섞기 쉽다.
이 문항은 반무신 봉기라는 공통점 속에서 "의종 복위"라는 문구가 누구의 사건인지 정확히 묻는 함정을 둔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무신정권기 사건은 먼저 핵심 표어와 지역을 연결해 판단한다.
의종 복위는 김보당, 서경·북계의 반무신 봉기는 조위총, 남부 지방 연합 민란은 김사미·효심, 왕후급 장례는 최씨 정권의 권세 과시로 정리하면 선지 판단이 빨라진다.

**암기 포인트**

의종 복위는 김보당, 서경 반무신은 조위총, 연합 민란은 김사미·효심, 왕후급 장례는 최씨 권세이다.

NoteBase

**문 12. 2018년 현재까지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이 아닌 기록물은?**

① 왕의 비서실인 승정원에서 일지 형식으로 쓴 기록

② 박지원이 청나라를 다녀온 후에 기록한 기행문

③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물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책판

④ 조선왕실 주요 행사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그림을 넣은 책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기록물과 등재되지 않은 기록물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승정원일기는 조선 왕명의 출납과 궁중 일을 날마다 적은 일기이며 세계기록유산이다.
열하일기는 박지원이 청을 다녀온 뒤 남긴 기행문이지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은 아니다.
한국의 유교책판은 조선 유학자 저작을 간행하려고 새긴 책판으로 세계기록유산이다.
조선왕조 의궤는 왕실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정리한 기록물로 세계기록유산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왕의 비서실인 승정원에서 작성한 일기 형식의 기록은 승정원일기이므로 세계기록유산에 해당한다.
② X 박지원이 청나라를 다녀온 후 기록한 기행문은 열하일기이다. 틀린 부분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열하일기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아니다.
③ O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물을 간행하기 위해 판각한 책판은 한국의 유교책판이므로 세계기록유산에 해당한다.
④ O 조선왕실 주요 행사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그림을 넣은 책은 조선왕조 의궤이므로 세계기록유산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조선 후기 대표 기록물이라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착각하기 쉽다. 이 문항은 유명한 기록물과 실제 유네스코 등재 기록물을 섞어 놓고 구분하는 함정을 둔 문제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설명을 먼저 구체적 기록물 이름으로 바꾼 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자주 묶여 출제되는 승정원일기, 의궤, 유교책판, 조선왕조실록 같은 항목인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세계기록유산은 승정원일기·유교책판·의궤이고, 열하일기는 박지원의 기행문이다.

NoteBase

**문 14. <보기 1>과 <보기 2>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1>
7월 9일 김유신 등이 황산 들판으로 진군하였다. 백제 장군 계백이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먼저 험한 곳을 차지하여 세 군데에 진을 치고 기다렸다. 유신 등이 병사를 세 길로 나누어 네 번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장수와 병졸들의 힘이 다하자, 장군 흠순이 아들 반굴에게 말하였다. "신하에게는 충성만 한 것이 없고, 자식에게는 효도만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위급할 때 목숨을 바친다면 충과 효 두 가지를 다하게 된다." 반굴이 "명을 받들겠습니다." 하고 곧장 적진에 뛰어들어 힘을 다해 싸우다 죽었다.
<보기 2>
고구려 대신 연정토(淵淨土)가 12성 763호 3543명을 이끌고 투항하였다. 연정토 및 함께 온 관리 24명에게 의복과 식량과 집을 주고 서울과 주(州)·부(府)에 안주시켰다. 12성 중 8성은 온전했으므로 군사를 보내 지키도록 하였다.

① 고구려에서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② 김춘추가 당에 가서 백제 정벌을 위한 군사 지원을 요청했다.
③ 당이 신라왕을 계림주 대도독으로 임명하였다.
④ 검모잠이 안승을 받들고 고구려 부흥을 도모하였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황산벌 전투가 벌어진 660년과 고구려 유민 연정토의 투항 사이에 들어가는 사건의 선후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김유신이 황산벌에서 계백과 맞서 백제 정벌을 진행한다.
2. 당이 신라왕을 계림주 대도독으로 임명한다.
3. 고구려가 멸망하고 유민 세력의 투항과 이동이 이어진다.
4. 그 뒤 검모잠이 안승을 받들어 고구려 부흥 운동을 전개한다.

왜 이 순서인가: 계림주 대도독 임명은 백제 멸망 이후 나당 연합이 유지되던 시기의 조치이고, 연정토의 투항은 고구려 멸망 이후의 일이며, 검모잠의 부흥 운동은 그보다 뒤에 전개되기 때문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 연개소문의 정변은 642년에 일어나 영류왕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다. 황산벌 전투보다 훨씬 이전이다. 틀린 표현은 '보기 1과 보기 2 사이'이고, 올바르게는 '보기 1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② X - 김춘추의 대당 외교와 백제 공격 지원 요청은 648년 무렵의 일로, 역시 660년 황산벌 전투 이전이다. 틀린 표현은 '사이에 일어났다'이고, 올바르게는 '백제 정벌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먼저 일어났다'이다.
③ O - 당이 신라왕을 계림주 대도독으로 임명한 것은 백제 멸망 이후이면서 고구려 유민의 투항이 이어지기 이전 시기에 해당한다. 보기 1과 보기 2 사이의 사건으로 가장 적절하다.
④ X - 검모잠이 안승을 받들고 고구려 부흥을 도모한 것은 고구려 멸망 이후의 부흥 운동이다. 연정토의 투항과 같은 고구려 멸망 이후 정세보다 뒤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 맞다. 틀린 표현은 '보기 1과 보기 2 사이'이고, 올바르게는 '보기 2 이후에 전개된 사건'이다.

### 오답 포인트

연개소문 정변, 김춘추의 방당, 계림주 대도독 임명, 검모잠의 부흥 운동을 모두 나당 관계사로만 묶어 두면 시기 구분이 흐려진다. 특히 ④는 고구려 멸망 직후의 혼란기 사건이라 보기 2와 가까워 보여 헷갈리기 쉽지만, 연정토의 투항 이후 부흥 운동이라는 점에서 뒤로 가야 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국사 연표 문제는 기준 사건 두 개를 먼저 연도대와 함께 잡고, 각 선지를 그 앞, 사이, 뒤로 나누어 배치하면 된다. 이 문항에서는 660년 백제 멸망 계기와 고구려 멸망 이후 유민 투항이라는 두 기준을 잡으면 ③만 사이에 남는다.

### 암기 포인트

연개소문 정변 642 -> 김춘추 방당 648 -> 황산벌 660 -> 계림주 대도독 -> 고구려 멸망 뒤 연정토 투항 -> 검모잠 부흥 운동의 흐름으로 묶어 둔다.

NoteBase

**문 15. <보기>의 역사적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옳게 배열한 것은?**

<보기>
ㄱ.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의 외상들이 회의하였다.
ㄴ. 제주도 파병과 정부에 반대하는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ㄷ. 경교장에서 백범 김구가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암살당하였다.
ㄹ. 좌우의 정치세력이 힘을 합치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ㅁ. 평양에서 남북의 정치,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모였다.

① ㄱ - ㄴ - ㄷ - ㄹ - ㅁ
② ㄱ - ㄷ - ㄹ - ㅁ - ㄴ
③ ㄱ - ㄹ - ㅁ - ㄴ - ㄷ
④ ㄱ - ㅁ - ㄴ - ㄷ - ㄹ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해방 직후 주요 정치·군사 사건의 연도를 연결해 시간순으로 배열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ㄱ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 1945년 12월 미국·영국·소련 외상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였다.
2. ㄹ 좌우 합작 운동 - 1946년 여운형·김규식 등을 중심으로 좌우 정치 세력이 협력하려는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3. ㅁ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 1948년 4월 평양에서 남북 지도자들이 모여 단독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였다.
4. ㄴ 여수·순천 10·19 사건 - 1948년 10월 제주도 파병에 반대한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5. ㄷ 김구 암살 - 1949년 6월 경교장에서 안두희가 김구를 암살하였다.

왜 이 순서인가: 좌우 합작 운동은 1946년의 일이고, 평양 남북협상은 1948년 4월, 여수·순천 사건은 1948년 10월, 김구 암살은 1949년이므로 ㄱ-ㄹ-ㅁ-ㄴ-ㄷ 순이 된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ㄴ과 ㄷ을 너무 앞에 둔 배열이다. 틀린 표현은 "ㄱ-ㄴ-ㄷ-ㄹ-ㅁ"의 중간 순서이다. 올바르게는 1946년의 ㄹ과 1948년 4월의 ㅁ이 1948년 10월의 ㄴ, 1949년의 ㄷ보다 먼저 온다.
② X: ㄷ을 두 번째에 둔 점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ㄱ-ㄷ-ㄹ-ㅁ-ㄴ"이다. 올바르게는 김구 암살은 1949년 사건이므로 가장 뒤에 와야 한다.
③ O: ㄱ-ㄹ-ㅁ-ㄴ-ㄷ은 1945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1946년 좌우 합작 운동, 1948년 4월 남북협상,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 1949년 김구 암살의 순서와 일치한다.
④ X: ㄹ을 맨 뒤로 보낸 점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ㄱ-ㅁ-ㄴ-ㄷ-ㄹ"이다. 올바르게는 좌우 합작 운동은 1946년이므로 1948년의 ㅁ·ㄴ과 1949년의 ㄷ보다 앞선다.

### 오답 포인트

1948년에 일어난 ㅁ과 ㄴ의 상대적 선후, 그리고 1946년 좌우 합작 운동과 1949년 김구 암살의 위치를 뒤섞으면 오답이 된다. 특히 ㅁ은 1948년 4월, ㄴ은 1948년 10월이라는 점이 자주 헷갈린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표 배열 문제는 각 사건을 먼저 연도로 묶고, 같은 해의 사건은 월까지 확인해 앞뒤를 가르면 된다. 해방 직후사는 1945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1946 좌우 합작, 1948 남북협상과 여수·순천 사건, 1949 김구 암살처럼 기준 사건을 세워 판단할 수 있다.

### 암기 포인트

모스크바 3상 45, 좌우 합작 46, 평양 남북협상 48.4, 여순 48.10, 김구 피살 49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문 16. 〈보기〉와 같은 사상 체계를 지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내세워 이(理)는 착하고 보편적이지만, 기(氣)는 착한 것과 악한 것이 섞여 있어 비천한 것으로 보았다.
• 4단(四端)은 이에서 발생하고, 7정(七情)은 기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① 주자의 서찰을 뽑아 『주자서절요』를 편찬하여 일본 주자학 발달에 기여하였다.
② 선배학자 이언적의 철학을 발전시켜 주리설(主理說)을 수립하였다.
③ 유성룡, 김성일, 정구, 장현광 등 영남학자들에게 학설이 계승되었다.
④ 국왕과 선비가 지켜야 할 왕도정치의 규범을 체계화한 『성학집요』를 지었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이기호발설과 사단칠정론을 단서로 인물을 이황으로 특정한 뒤, 그의 저술과 학통을 이이의 것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이황은 이기호발설을 바탕으로 주리설을 전개한 영남학파의 중심 학자이다.
이황은 사단은 이가 드러난 것이고 칠정은 기와 관련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와 기를 구분해 설명하였다.
이이는 현실 개혁론과 왕도정치론을 체계화하며 『성학집요』를 지은 인물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주자서절요』는 이황이 주자의 편지를 가려 엮은 책이다. 이황의 주자학 이해를 보여 주는 저술로 일본 주자학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으므로 옳다.
2번 O: 이황은 이언적의 성리학을 계승·발전시켜 이 중심의 주리설을 체계화하였다. 선지의 핵심 연결이 이황과 맞으므로 옳다.
3번 O: 유성룡, 김성일, 정구, 장현광 등은 대표적인 영남학파 학자들로 이황의 학통을 이었다. 영남학파 계승이라는 연결이 정확하므로 옳다.
4번 X: 틀린 표현은 '『성학집요』를 지었다'이다. 『성학집요』는 국왕이 지켜야 할 왕도정치의 원리를 정리한 이이의 저술이다. 이황으로 고치려면 '『주자서절요』를 편찬하였다' 또는 '『성학십도』를 지었다'와 같이 바꾸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이황과 이이는 모두 조선 성리학의 대표 학자이므로 저술명이 서로 바뀌어 나오면 쉽게 흔들린다. 특히 이기호발설·영남학파·『주자서절요』는 이황이고, 『성학집요』는 이이라는 점을 섞으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제시문의 이론 키워드로 인물을 확정한 뒤 저술과 학파를 대조하면 된다. 이기호발설, 사단은 이·칠정은 기라는 설명이 보이면 이황을 떠올리고, 이후 선택지에서 영남학파와 『주자서절요』는 맞고 『성학집요』가 나오면 이이로 돌리면 된다.

**암기 포인트**

이황은 이기호발설·주리설·영남학파·『주자서절요』이고, 이이는 『성학집요』이다.

NoteBase

**문 17. 정치적 입장이 노론이었던 학자가 쓴 책의 주요 내용을 바르게 소개한 것은?**

① 실옹과 허자의 문답 형식을 빌려 고정관념을 상대적 논법으로 비판했다.

② 부안 우반동에서 농촌 사회의 안정을 위해 공전제와 토지 재분배를 주장했다.

③ 침성촌에 은거하면서 견문한 내용들을 백과사전식으로 저술했다.

④ 야사 400여 종을 참고해 조선정치사를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했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학자의 정치적 계열과 대표 저술의 내용을 함께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홍대용은 노론 낙론 계열의 북학파 학자이며 『의산문답』에서 실옹과 허자의 문답 형식으로 화이관과 고정관념을 비판하였다.
유형원은 남인 계열의 실학자로 『반계수록』에서 공전제에 바탕을 둔 토지 제도 개혁과 여러 제도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이익은 근기 남인 계열의 실학자로 첨성촌에 은거하며 『성호사설』을 통해 여러 분야를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하였다.
이긍익은 소론 계열의 학자로 『연려실기술』에서 야사 400여 종을 바탕으로 조선의 정치·사회·문화를 기사본말체로 서술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실옹과 허자의 문답 형식으로 고정관념을 상대화해 비판한 책은 홍대용의 『의산문답』이다. 홍대용은 노론 낙론 계열이므로 발문의 조건과 저술 내용이 모두 맞는다.
② X: 틀린 부분은 이 설명을 노론 학자의 저술로 본 점이다. 부안 우반동에서 농촌 사회의 안정을 위해 공전제와 토지 재분배를 주장한 것은 유형원의 『반계수록』인데, 유형원은 노론이 아니라 남인 계열의 학자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이 설명을 노론 학자의 저술로 본 점이다. 첨성촌에 은거하면서 견문과 생각을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한 것은 이익의 『성호사설』인데, 이익은 노론이 아니라 근기 남인 계열의 학자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이 설명을 노론 학자의 저술로 본 점과 책의 성격을 지나치게 좁힌 점이다. 야사 400여 종을 참고해 조선의 정치·사회·문화를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은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인데, 이긍익은 노론이 아니라 소론 계열의 학자이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②~④는 저술의 내용만 보면 익숙한 설명이라 쉽게 끌리지만, 발문은 내용만이 아니라 저자의 정치적 입장까지 함께 묻고 있다. 책 내용을 먼저 알아도 저자가 남인인지 소론인지까지 걸러내지 못하면 오답이 된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선지의 내용만 보지 않고 먼저 저자와 저술을 짝지은 뒤, 그 저자의 당파가 발문의 조건과 일치하는지까지 한 번 더 확인하면 된다. 저술 내용이 맞아도 저자의 정치적 계열이 다르면 오답이다.

### 암기 포인트

홍대용은 노론 낙론과 『의산문답』으로 연결되고, 유형원과 이익은 남인 계열, 이긍익은 소론 계열로 구분된다.

NoteBase

**문 18. 〈보기〉의 강령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없는 것은?**

〈보기〉
-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① 일제의 민족분열 정책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② 농촌진흥운동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③ 자치운동의 확산을 경계하였다.
④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의 동의를 얻었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시된 강령이 신간회의 것임을 파악하고, 신간회 창립의 배경과 무관한 사실을 가려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신간회는 1927년에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하여 결성한 민족협동전선 단체이다. 핵심 키워드는 민족 유일당 운동, 정우회 선언, 자치운동 비판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일제의 문화 통치 아래 민족 분열 정책과 친일 세력 육성에 맞서 민족 진영의 단결 필요성이 커졌고, 이는 신간회 창립 배경에 해당한다.
2번 X: 틀린 부분은 "농촌진흥운동을 촉진하고자 하였다"이다. 농촌진흥운동은 1930년대 일제가 주도한 농촌 통제 정책으로, 1927년 신간회 창립 배경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신간회는 민족협동전선 형성과 자치운동 비판 속에서 등장하였다.
3번 O: 1920년대 일부 민족주의 세력이 추진한 자치운동은 타협적 성격으로 비판을 받았고, 그 확산을 경계한 비타협 세력이 신간회 결성에 참여하였다.
4번 O: 1926년 정우회 선언 이후 사회주의 세력이 민족 협동 전선 노선으로 전환하였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의 동의가 이루어져 신간회가 성립하였다.

NoteBase

### 오답 포인트

2번은 "농촌"이라는 단어 때문에 민중 운동과 연결해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신간회는 1927년의 민족협동전선이고, 농촌진흥운동은 1930년대 일제의 농촌 통제 정책이므로 시기와 주체가 모두 다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치적·경제적 각성 촉진, 단결 공고, 기회주의 부인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먼저 신간회 강령을 떠올린다. 그다음 1920년대 민족 유일당 운동, 정우회 선언, 자치운동 비판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면 정답을 가릴 수 있다.

### 암기 포인트

신간회는 1927년 민족협동전선, 자치운동 비판, 정우회 선언과 연결되고 농촌진흥운동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19. <보기>에서 설명하는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도적들이 나라 서남쪽에서 봉기하였다. 그들은 바지를 붉게 물들여 스스로 남들과 다르게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적고적(赤袴賊)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주와 현을 도륙하고 서울의 서부 모량리까지 와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노략질하고 돌아갔다.

① 대구화상이 『삼대목』을 편찬하였다.
② 원종과 애노가 난을 일으켰다.
③ 최치원이 시무 10여조를 바쳤다.
④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신라 하대의 적고적의 난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의 사건을 구분하는 순서형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원종과 애노의 난 - 889년에 일어난 신라 하대 농민 봉기이다.
2. 최치원의 시무 10여조 - 진성여왕 때 개혁안을 올린 일이다.
3. 적고적의 난 - 신라 하대에 서남쪽에서 일어난 도적의 봉기이다.
4. 궁예의 후고구려 건국 - 901년에 후고구려가 세워진 일이다.

왜 이 순서인가: 적고적의 난은 신라 말 사회 혼란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궁예의 후고구려 건국은 그 뒤 후삼국 성립으로 이어지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대구화상이 『삼대목』을 편찬한 일은 진성여왕 2년(888년)으로 신라 하대에 해당하며, 적고적의 난(896년)보다 앞선 일이다. 틀린 표현은 사건의 시기이다. 올바르게는 적고적의 난 이전의 일이다.
② X: 원종과 애노의 난은 889년에 일어난 대표적 농민 봉기로, 적고적의 난보다 앞선다. 틀린 표현은 선후 관계이다. 올바르게는 원종과 애노의 난이 적고적의 난보다 먼저 일어났다.
③ X: 최치원이 시무 10여조를 바친 것은 진성여왕 때의 개혁 건의로 적고적의 난 이전이다. 틀린 표현은 사건의 시기이다. 올바르게는 최치원의 시무 10여조 상소가 적고적의 난보다 먼저 있었다.
④ O: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한 것은 901년으로, 신라 하대의 사회 혼란이 심화된 뒤 후삼국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적고적의 난 이후의 사건으로 맞다.

### 오답 포인트

신라 하대의 여러 사건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몰려 있어 앞뒤를 섞기 쉽다. 특히 원종과 애노의 난, 최치원의 개혁안, 적고적의 난, 후삼국 성립을 한 흐름으로 묶어 두지 않으면 ②와 ③을 이후 사건으로 착각하기 쉽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신라 말 연표 문제는 농민 봉기와 개혁 시도, 그리고 후삼국 성립의 흐름으로 판단한다. 원종과 애노의 난과 최치원의 개혁안이 먼저 나오고, 사회 혼란이 심화된 뒤 궁예와 견훤의 건국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정답을 가를 수 있다.

### 암기 포인트

신라 하대 흐름은 원종·애노의 난 → 최치원 개혁안 → 적고적의 난 → 후삼국 성립이다.

NoteBase

**문 20. <보기>의 정치적 사건이 일어난 왕대의 일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보기>
후궁이 낳은 왕자가 세자로 책봉되는 과정에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집권하였으며, 송시열과 김수항 등이 처형당하였다.

① 청과 러시아 사이에 국경 충돌이 일어나자, 청의 요구에 따라 수백 명의 조총부대를 영고탑(지금의 지린성)에 파견하였다.
② 병조판서 김석주의 건의에 따라 국왕 호위와 수도 방위의 핵심 군영 중 하나인 금위영이 설치되었다.
③ 안용복이 울릉도와 우산도(독도)에 출몰하는 왜인을 쫓아내고 일본 당국과 담판하여 그곳이 우리의 영토임을 승인받았다.
④ 삼남지방에 대한 양전사업이 완료되었고, 세종 때 설치했다가 폐지한 '폐사군'의 일부를 복설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기사환국의 단서로 왕을 숙종으로 특정하고, 각 사건이 숙종대와 연결되는지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제시문의 사건은 기사환국이다. 후궁이 낳은 왕자의 세자 책봉 과정에서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집권하였으며, 송시열과 김수항 등이 처형되었다. 따라서 기준이 되는 왕은 숙종이다.
숙종대 핵심 키워드는 환국 정치, 금위영 설치, 안용복의 울릉도·우산도 관련 활동, 삼남 양전과 폐사군 일부 복설이다.

NoteBase

### 선지별 해설

① X: 청과 러시아의 국경 충돌에 조선이 조총 부대를 영고탑에 파견한 일은 나선정벌이다. 이는 효종 때의 북벌론과 연결되는 사건이므로 숙종대와는 관련이 없다. 틀린 표현은 숙종대의 일로 연결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효종 때의 일이다.
② O: 금위영은 병조판서 김석주의 건의에 따라 설치된 5군영의 하나로, 숙종대의 왕권 강화와 수도 방위 체제 정비를 보여 준다. 따라서 제시문의 왕대와 관련이 있다.
③ O: 안용복이 울릉도와 우산도에 대한 조선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일본 측과 담판한 일은 숙종대의 대일 관계 사건이다. 따라서 제시문의 왕대와 관련이 있다.
④ O: 숙종 말에는 삼남 지방에 대한 양전 사업이 마무리되었고, 세종 때 설치되었다가 폐지된 폐사군의 일부를 복설하는 등 재정 정비와 북방 경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제시문의 왕대와 관련이 있다.

### 오답 포인트

①은 조선 후기 사건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숙종대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효종 때 나선정벌이다.
②·③·④는 모두 숙종대의 군영 정비, 영토 문제 대응, 양전 사업과 연결되므로 숙종 묶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장희빈 소생의 세자 책봉, 서인 축출, 남인 집권, 송시열 처형이 함께 나오면 기사환국과 숙종을 먼저 연결한다. 이후 선지를 숙종의 군영 정비, 대일 영토 문제, 양전 사업과 대조하고, 나선정벌처럼 효종 북벌론 계열 사건을 제거하면 된다.

### 암기 포인트

기사환국은 숙종, 나선정벌은 효종, 금위영·안용복·삼남 양전은 숙종이다.

NoteBase